

PE8) 대구시 도심내 수경관 도입을 위한 옛 물길 지도 작성

정희령¹⁾·김수봉¹⁾·우형택²⁾·문혜식³⁾·전은정²⁾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¹⁾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²⁾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³⁾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1. 서론

과거부터 도시를 흐르는 물길은 인류의 생활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도심내 하천은 식수공급 역할과 더불어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등 일상생활의 한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하천 복개는 1960~70년대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면서 경제와 도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도시하천의 정비가 이뤄지면서부터였다. 같은 시기, 대구에서도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였고 1967년부터 싹틔울 역할을 하였던 과거 물길들은 점차 소실되었다. 80년대 청계천 사업이후, 도시하천 복원 및 하천정비 사업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민들에게 친수공간과 함께 생태기능도 제공할 수 있는 수경관 도입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원래 도시의 물길을 찾아보기 위해 옛 물길 지도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 대구시 도심내 수경관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옛물길과 현재 물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구시 물길지도 작성을 근거로 도심내 수경관 도입을 위함에 있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00년대 초부터 2016년까지이고, 대구시 옛 물길 지도 작성을 위한 분석방법은 크게 세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1단계는 고문헌을 통한 물길 분석단계로서 1903년부터 현재까지 대구를 대상으로 제작된 지도 및 위성 사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도별로 수집한 고지도의 범례를 분석하여 물길을 추적하였고 특히 1918년 근세 한국 오만분의 일 지형도를 중점으로 옛 물길 초안 작성을 실시하였다. 2단계는 1957년도 지도 외 14개의 지도를 활용한 물길 보정단계로서 고문헌을 통해 분석된 물길 중 지적원도 소실구간, 지도제작방식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재 물길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물길보정작업을 하였다. 각 연도별 지도는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Auto CAD를 활용하여 물길을 보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대구시 옛 물길 지도를 기초로 현재 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보존되고 있는 물길, 일부 수로 변경된 물길, 소실된 물길 등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지도를 중첩시키기 위해 ArcGIS, 수치지도,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대구시를 대표하는 소실된 물길 및 일부 구간 사라진 물길을 중점적으로 특이지역을 고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옛물길 지도 분석결과 보존되고 있는 물길은 낙동강, 금호강, 신천을 포함한 155개소이며, 변경된 물길은 달서천, 범어천, 대명천, 방촌천이 있으며 소실된 물길은 대구천, 이천천, 남산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하천들이 일부 소실되었다. 고지도와 고문헌분석결과 과거와 현재의 물길 비교는 아래와 같다.

Table 1. 행정구역별 과거와 현재의 물길 비교

구분	행정구역	현재물길	소실된 물길
하천	중구	-	대구천, 남산천, 이천천
	동구	동화천, 지묘천, 용수천, 능선천, 방촌천, 불로천, 율하천, 숙천	방촌천(일부구간소실), 불로천지류소실(무명), 율하천지류소실(무명), 지묘천지류소실(무명), 용수천지류소실(무명), 능선천지류소실(무명)
	서구	달서천	달서천(일부구간소실), 대명천지류소실(무명)
	남구	-	이천천, 남산천, 대명천지류소실(무명)
	북구	팔거천, 동화 천(동구와 중복)	대구천, 팔거천지류소실(무명)
	수성구	범어천, 매호천, 옥수천, 남천	범어천(일부구간소실)
달서구	진천천, 대명천	대명천지류소실(무명), 매호천지류소실(무명)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소실된 대구시 도심내 수경관 도입을 위한 옛 물길 지도 작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지도와 고 문헌을 통해 작성된 옛물길 지도 분석 과정에서 물길들의 역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소실된 물길들은 지명유래와 고유한 하천 주위의 환경이 있었으며, 특히 대구천과 달서천은 대구의 중심인 대구읍성과 달성토성을 따라 흐르면서 성을 방어하는 해자로서의 역할과 대구민의 생활사에도 크게 관여 했던 대구의 정체성을 가진 물길이다. 이런 점에서 옛물길은 도시의 역사와 함께 했던 하천으로서 물리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도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둘째, 도시화 과정에서 소실된 물길 중 대구의 정체성과 역사적 근거를 기준으로 수경관 도입 적합지로 달서천, 대구천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달서천은 달성공원 일대를 통과하고 금호강 합류지점부터 현재 물길이 일부 남아 있으며, 대구천은 대구읍성을 아우르며 신천과 더불어 대구 분지의 지형 발달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하천이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소실된 옛 물길 회복을 목표로 달서천, 대구천을 대구시 도심내 수경관 적합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5. 참고문헌

- 김도영, 이양주, 이재준, 김충관, 2014, 수원시 하천복원을 위한 옛 물길 추적방법 연구:1912년 수원시 지적원도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49(8), 147-159.
 최형주, 2015, 대구광역시 복개도로 하천복원화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